

光州日報 연중 캠페인
함께 할수록 커지는 문화 나눔
Hand in Hand

VV, 사랑과 희망 나누는 든든한 친구

〈바이올린 자원봉사 선생님·Violin Volunteer〉

“지운아, 활을 좀 더 힘있게 움직여야지.”
“예림아, 박자를 생각하면서 연주를 해야해. 너무 빨라.”

지난달 26일 서울시 중구 북정동 신광교회 대학에서 바이올린을 전공중인 이새롭(24·경희대 음대)씨의 지도를 받는 10여명 아이들이 연주하는 서터를 바이올린 소리가 교회를 가득 메웠다.

이 씨는 여건이 안되는 아이들에게 무료로 바이올린을 가르쳐 주는 단체인 ‘사랑의 바이올린(Love Violin)’의 자원봉사자다. 이 씨는 매주 토요일이면 신광교회와 동승동 마로니에 공부방 아이들에게 무료로 바이올린을 가르치고 있다. 지난 2006년 10월부터 시작한 일이니 꼬박 1년 6개월째 아이들과 함께 인셉션이다.

주에립(9·흥인초 3년)양은 “1년전부터 바이올린을 배웠는데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지금은 소중한 친구가 됐다”고 말했다.

▲매주 한 차례 씩 무료 강습

‘사랑의 바이올린’은 여건이 어려워 음악을 배우기 어려운 아이들에게 개인과 기업, 서울시의 후원을 받아 무상으로 바이올린을 제공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시키는 비영리 단체다.

단체의 출발은 소박했다. 지난 2005년 현재 회장을 맡고 있는 최혜정(44)씨 부부는 딸이가 바이올린을 배우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사정이 여의치 않아 악기를 접하지 못한 아이들에게 바이올린을 가르쳐 보는 건 어떨까 생각했다.

자신들이 다니던 교회의 작은 공간을 하나 얻은 최씨 부부는 바이올린을 전공중인 대학생들에게 아이들을 가르쳐 달라는 부탁을 했고, 학생들의 도움으로 7명의 아이들에게 바이올린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소박했던 꿈은 또 다른 희망을 꿈꾸기 시작했다. 이후 몇 사람의 의기투합하면서 ‘바이올린’을 통해 좀 더 체계적으로 문화 나눔을 실천하자는 생각이 들었고, 준비작업을 거쳐 지난해 2006년 8월 정식적으로 민간 사회단체로 등록했다.

‘사랑의 바이올린’은 때받치고 있는 든든한 바팀복은 바이올린을 가르치는 자원봉사 선생님인 ‘VV(Violin Volunteer)’다. 현재 봉사자로 등록된 인원은 모두 130여명에 달하고 50여명이 활동중이다. 그중 10여명은 해외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 15만원 상당의 연습용 바이올린을 무상으로 지원받아 바이올린을 배우고 있는 어린이는 모두 380여명이며 30여곳에서 강의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 바이올린 강습이 이뤄지고 있는 곳은 다양하다. 은평 천사원, 오류 애육원, 한국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세브란스 어린이 병원, 정진학교(특수학교), 마로니에 공부방, 드림지역아동센터 등 소외시설들에서 강습이 진행되며 광주·대구 등 지방에서도 사랑의 바이올린은 융려펴지고 있다. 국내 뿐 아니라 해외



‘사랑의 바이올린’은 여건이 어려운 어린이들에게 바이올린을 무료로 대여해 주고 1주일에 한차례씩 강습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6일 서울시 중구 신광교회에서 진행된 강습 모습.

/김미온기자 mekim@kwangju.co.kr



2006년부터 개인·기업·서울시 후원 받아 무상으로 보급

지속적인 봉사 목표… 매년 2박 3일 여름 캠프·음악회

로도 활동 영역을 넓혀 평교와 필리핀의 아이들에게도 바이올린으로 사랑을 전하고 있다.

알콜중독자인 아버지의 폭력에 휘둘리던 준성(가명)은 공부방에서 바이올린을 배우며 조금씩 마음을 열어갔고, 학교에서 왈따 신세였던 이주 가정의 자녀 역시 외국인근로자센터에서 바이올린을 배운 후 학예회에서 멋진 솜씨를 선보여 친구들에게 많은 박수를 받았다.

휠체어를 타고 링거를 맞은 채 힘들게 한을 핸을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어린이 병동의 아이들에게는 ‘사랑의 바이올린’이 든든한 친구다.

▲200여명이 무대 올라 장관 연출

‘사랑의 바이올린’이 심혈을 기울이는 프로그램은 ‘사랑의 바이올린 여름 캠프’와 음악회다. 2박 3일간 진행되는 캠프에서 자원봉사자 선생님들과 아이들은 함께 숙식을 하며 집중적으로 바이올린을 배우고 서

로간의 애릇한 점을 나누며 ‘소속감’을 갖는다.

매년 한차례 열리는 음악회는 어린이와 선생님들에게 동기를 부여해주는 행사다. 올 초 서울 한전 아트센터에서 열린 음악회에는 홍보대사를 맡고 있는 바이올리ニ스트 강동석씨와 자원봉사자, 어린이 등 210명이 한 무대에 올라 멋진 화음을 들려주는 장관을 연출했다.

‘사랑의 바이올린’의 힘은 아무 대가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바이올린을 가르치는 자원봉사자에게 나온다. 그래서 단체의 운영 역시 자원봉사 선생님들을 중심으로 돌아간다. 무엇보다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는, ‘지속적인 봉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사랑의 바이올린’ 홈페이지에는 자원봉사를 하고 싶다는 사람들과 아이들에게 바이올린을 가르치고 싶다는 기관의 글이 끊임 없이 올라온다. 운영진은 봉

사자를 중심에 놓고 봉사자가 거주하는 곳에서 가까운 기관을 매치시켜 준다.

“아이들이 레슨 시간을 기다리며 집에서 열심히 연습해 오는 걸 보면 뿌듯함을 느끼죠. 특히 아이들이 나도 바이올린을 배운다는 데 자금심을 느끼고 평상시에도 자신감을 갖게 된 걸 보면 행복해요.”

이새롭씨는 “매주 고정된 시간을 빼내야 하고 격차가 나는 아이들을 함께 가르치는 게 조금 벅차기는 하지만 많은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문의 02-585-1567. http://cafe.daum.net/luvviolin

/서울=김미온기자 mekim@kwangju.co.kr

Land Life Love 한국토지공사
후원

한국전력공사
후원

■ ‘사랑의 바이올린’ 최혜정 대표

“30년 안에 바이올린 10만대 보급 계획”



“저희 단체의 힘은 바로 자원봉사 선생님들에게 나옵니다. 그들이 없다면 ‘사랑의 바이올린’이 지금처럼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 어갈 수 없었을 거예요.”

‘사랑의 바이올린’ 최혜정(44) 대표는 어린이들에게 무상한 애정을 갖고 바이올린을 무료로 지원해 주는 자원봉사자들이 가장 큰 힘이라고 강조했다.

단체를 운영하면서 가장 힘든 점은 아무래도 재정적인 부분이다. 현재 서울시로부터 1년에 1천만원 정도 지원을 받고, BC 카드 등 일부 기업체들이 후원을 하기는 하지만 강습과 캠프, 음악회 등을 꾸리기에는 턱 없이 부족한 액수.

하지만 최 대표는 큰 꿈을 꾸고 있다. 실력이 우수한 아이들은 홍보대사로 있는 강동석씨가 진행하는 외국 음악캠프에 보내는 등 동기 부여를 하고, 현재 운영중인 미주 본부를 활성화해 앞으로 30년안에 10만대의 바이올린을 보급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저희들이 가르치고자 하는 건 바이올린 기교가 아니에요. 바이올린을 매개로 사랑을 나누는 것이죠.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그 아이들이 또 다른 이들에게 사랑을 전한다면 정말 행복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요.”

/김미온기자 mekim@kwangju.co.kr

■ 문화 나눔 현장, 알려주세요

문화는 나눌수록 더욱 커집니다. 소외계층과 함께 공연을 관람하는 객석 기부, 예술인들의 공연 기부, 기업체의 예술단체 지원 등 아름다운 문화나눔 현장을 찾아갑니다.

작은 목소리도 큰 울림을 줍니다. 여러분 주변의 향기로운 문화 나눔 소식을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광주일보사(062-220-0661, mekim@kwangju.co.kr)나 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062-381-2234)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장수온돌침대

자연재 원단으로 만든 침대는 천연 원단으로 만든 침대입니다.
자연재 원단으로 만든 침대는 천연 원단으로 만든 침대입니다.

사별 1,250,000 원
체크리스 1,250,000 원
체리리스 1,250,000 원

화이트 침대용 가구
화이트 침대용 가구
화이트 침대용 가구
화이트 침대용 가구

모디쉬갤러리
광주점
T. 062-252-3001~2

모디쉬갤러리

사론 4인식탁 ₩ 690,000 (프로모션)

그린드 퀸즈 1,250,000 원
체크리스 1,250,000 원
체리리스 1,250,000 원

화이트 침대용 가구
화이트 침대용 가구
화이트 침대용 가구
화이트 침대용 가구

모디쉬갤러리
광주점
T. 062-252-3001~2